

□ 백수의 심리

'백수전달이나, 백수강인 (白手強人)이나'

장일순

(사회과학부 교수)

백수전달 하면 우리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빈털터리'나, '일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외에도 돈도 없이 멋부리고 다니는 사람, 거짓이나 사기 잘치는 사람, 허풍이나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 실속없이 건들거리는 사람 등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개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백수전달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다시 말해서 백수전달이라는 것이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백수전달이었던지를 사회학적 내지는 사회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우선, 백수전달 또는 백수전달적 기질은 선천적인 것일까 하는 문제는 인성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의 특정한 이론에 의한다면 절대 부정할 점도 있을지 모르나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백수전달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후천적 다시 말해서 사회와 환경이 백수전달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적 환경 아래서 백수전달이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극히 가난하게 태어나므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기술습득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변변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과 빈곤의 환경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백수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태어날 때는 좋은 가정과 환경에서 태어나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였지만 불의의 사고나 사업 실패로 백수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은 하였지만 방탕한 생활과 무절제한 생활의 결과로 가산을 탕진하여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백수전달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이 상황에 처해있는 백수전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백수전달의 실체가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동 등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백수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오늘 IMF 위기 상황에서 양산된 실업자들이 갑자기 백수전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백수전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백수전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백수가 된다해서 백수 모두가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 백수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첫단계는 어쨌든 빈손, 빈털터리가 되는 과정일 것이다. 빈손, 빈털터리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란 상호교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계속 주지만 하고 다른 한사람은 계속 받기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수는 인간관계에서 어차피 떼뗄하며 당당한 위치에 있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역시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수 없음은 당연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자학과 비관같은 것도 자연히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에서 올 수도 있지만 제삼자에 의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더 큰 영향을 주게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오랫동안 일 자리를 갖지도 못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주위에서의 시선과 눈총은 매우 냉소적이고 비하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주위의 태도와 자극은 백수에게는 더욱 참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극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서 백수전달은 허풍이나 과장된 언어와 행동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이나 사기적인 언어와 행동,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경우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까지도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은 백수전달의 비정상적이며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반면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태만이나 방황, 더 나아가서는 약물중독과 같은 방법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무섭게 몰아닥칠 IMF한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때 본의 아닌 백수전달로 전락될 사람들이 많이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아무쪼록 백수전달(白手強人)이 아니라 백수강인(白手強人)이 되어 IMF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백수전달은 사회와 환경이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 IMF와 백수

준비하는 자에게

IMF는 I'M Fine.

백수(白手)의 슬픈이야기
있는 것은 체력이요 없는 것은 능력이니 들어나는 것은 한숨이요 줄어드는 것은 돈이로다. 기쁜 것은 방바닥이요 보이는 것은 천장이니 들리는 것은 구박이요 느끼는 것은 허탈감이라. 먹는 것은 나이요 남는 것은 시간이니 펼친 것은 벼룩시장이요 거는 것은 전화다. 혹시나 한 것은 기대감이요 역시나 한 것은 허망함이니 오는 것은 연체료요 가는 것은 돈이로다.

IMF한파에 밀려 변변한 취직자리 없는 우리네 현실을 담은 PC통신의 글이다. 얼핏보면 재미있는 말들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뼈아픈 현실로 다가온다.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백수들, 아예 자신을 '예비백수'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대학 4년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IMF시대로 인해 돌아오는 것은 실패의 쓴 잔뿐이었다. 또한 군대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 역시 백수생활을 청산하고자 하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예전 대학가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캥거루족'들도 IMF한파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캥거루족'이란 대학졸업을 미루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르바이트 등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대학가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다 자란 어린 캥거루가 어미 캥거루의 보호주머니를 벗어내지 않으려는 현상에서 유래한 말이다. (자료:한국일보) 역시 백수의 의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백수생활, 돈도 없고 일거리도 없다고 언제까지 방황과 좌절만 할 것인가.

주위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면 백수생활은 그리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어쩌보면 사회적 편견이 백수생활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지도 모른다. 철저한 프로백수정신으로 이 기간을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꾸준히 준비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기회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백수들이여!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을 잊지말자.

(김동혁 기자)

□ 역사 속의 백수

백수에도 품격이 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멀쩡한 전달'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21세기의 백수들.

그렇다면 지난 날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했던 자랑스런 백수들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시대를 낚는'다는 일념하에 칠십 평생을 낚지만 하고 살았다는 강태공. 고려시대 최씨의 무단정치를 피해 산 속으로 들어가 시와 함께 생을 마감한 죽림칠현. 나이 서른 살이 되도록 해커질을 하다가 소 뒷걸음질에 쥐잡는격으로 때부자가 된 애플컴퓨터의 창

시자 스티븐 잡스. 갓 하나 쓰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았던 과객 김삿갓. 세조시절 권세로운 한명회의 술상에 오줌을 휘갈겼던 생육신 매월당 김시습. 단 한번 고향을 떠나 본적도 없이 산책과 독서와 사색만으로 살아갔던 독일 관념론의 아버지 칸트. 온갖 벼슬 자리를 마다하고 정사 의례를 '저게 무슨 짓'하고 코웃음치며 중국의 대학자인 곡정, 왕인호등을 비롯했던 연암 박지원등 굵디고 운 손으로 세상을 흔들어놓은 '백수'들은 그 밖에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혼탁했던 조선시대의 두 가지 백수 모습을 보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아웃사이더 연암 박지원과 그야말로 '백수전달'이었던 김삿갓. 전자는 18세기 권력쟁탈에 대한 개인적 체제 이탈로 생긴 국외인이고, 후자는 19세

기 현실대응의 기능을 잃고 해학 풍자등을 삶의 방편으로 삼은 유랑 지식인이다.

또한 연암은 허위적 윤리의식과 삼정의 폐단의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실학자였고, 김삿갓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역적이었던 사실 때문에 출세길이 막혀 근 40년을 전국 방방곡곡 유랑을 거듭하는 사이 서민층사이에서 신화적 존재가 되었던 인물이다.

이와함께 연암은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과 같은 소설로서 세상을 비추어 보았으며 김삿갓은 비평의식이 일어났던 당대의 분위기에 공감되는 파격적인 시를 구사해 이름을 떨쳤다.

연암과 김삿갓은 벼슬자리에 얽매이거나 구애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일정한 벼슬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자신의 기득권에만 매달려 아마도 그러한 시대를 풍는

혜안을 지니거나 짜릿한 위트를 자아내는 시구를 구상할리는 없었으리라.

물론 그들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백수'와는 사뭇 의미가 다르다. 그들은 시대를 앞서 갔던 인물이었다고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한 사회가 그들을 백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허물한 도포자락과 걸신을 끌고 다니며 노숙을 하고 전세집을 궁궁하면 서도 꾸준히 양식을 두고, 재량을 키워으며, 지식체계를 넓혀나갔다. 또한 세상의 고정된 관념을 두려워함 없이 자신의 사상과 비판의식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그러한 연암과 김삿갓의 정신을 이어받아 놀랄만한 창의력을 발휘할 스스로의 두뇌를 믿어라! 백수들이여, 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히든카드이다.

(김현종 기자)

3월 3일 개강

PAGODA

신입생 여러분! 입학 을 축하합니다

http://www.pagodaac.com

미국인 영어회화 SLE (개별 12월/1월 1시간) 집중영어회화 (1월 5시간/ 2시간)	기초 영어회화 SIDE BY SIDE · INTERCHANGE COMMUNICATE · BASICS NEW PERSON · GATEWAYS
취업 · 진학 · 유학 TOEIC · TOEFL · G-TELP AFKN · READING & VOCA WRITING · TIME · GRE · GMAT	일본어 기초 일본어 (문법+회화) 일본인 회화
전문 프로그램 191 집중 영어회화 맞춤식 개인지도 (TEL. 615-4020)	NEW 최신 프로그램 다국어인 영어 통신영어 강좌 (TEL. 777-4401)

상당 문의 274-4000 강남 501-4002 신촌 717-4000
입구 3442-4000 부산서면 (051)802-5001

파고다외국어학원

NEW CLASSES!

여행과 비즈니스를 위한
SURVIVAL ENGLISH

토익시험 대비
TOEIC LISTENING

듣기향상을 위한
I GOT IT!

발음교정을 위한
SOUNDS FUN!

LTRC is your key to learning English

제158기 수강생 모집

개강일 : 1998년 3월 4일
반편성 : Level Test에 따라
6~13명으로 구성
수강기간 : 1월 75분 주 5일 수업
강사진 : Native Speaker 직강
등록 : 1998년 2월 18일부터
Tel : 737-4641(대)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학원

CHUNGMOON

http://www.chungmoon.co.kr

개강일 3월 2일

● 기초 한민 영어회화
- Side by Side, Interchange, Communicate
● 미국인 영어회화 (EFL, Free Talk)
- 주 5회 1월 50분 (Level Test, Native Speaker, 철저한 화사관리)
● 유학, 진학, 승진, 취업영어
- 엘리트 TOEIC, 인박사TOEIC, TOEIC L/C R/C
아카데미TOEIC, TOEFC L/C, GRE, 대학권업영어
● 영어 청취
- 스크린 청취, 기초 L/C, 미국어 Hearing, AFKN.
● 영어 독해, 영작, 어휘
- 영어순회, TIME, 영작, Vocabulary
● 일본어
- 초급, 중급, 입문회화, Free Talk
일어중국어, NKK,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 중국어
- 초·중·고급 문법, 초·중·고급 회화
Screen중국어, CCTV,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 프랑스어
- 초·중·고급 문법, 독해, 비디오 청취/회화
● 주말특별반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정문외국어학원
종각역 종로서책 뒤 738-5151(대)

외국기업 경리전문가 교육생 모집

IMF시대의 생존 전략-
안정적인 직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외국회사로 가고 싶습니까?
국내기업과 업무성격이 다른 외국기업의 경리업무-
국내최초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IATC는
경리실무자를 양성하는 전문학원입니다.

교육내용	모집요강
1. 외국기업 경리실무교육 (원서 강의) 2. 경리 기초 및 결산 ● Transfer Price ● Tax Return ● Tariff Audit/Credit Control ● International/External Audit ● Accounting Program Training ● V.A.T./Withholding Tax/Income Tax ● Budget/Dividend/Royalty/ Finance Policy/Others	1. 수강대상 ● 영어회화 가능자 후대 ● 경시대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외국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한국기업 경리실무자 2. 교육기간: 6개월 3. 설명회: 1998.3.15(일) (14시, 15시 30분)

4. OA과정 (1인 IPC)
- Window 95, Excel, Powerpoint, Access
4. 강사진: Foreign Investment Co.
Finance Manager

IATC
International Accountant Training Center
Korean Accountant Search Company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보빌딩 4층 (신사역 1번 출구 영동3로 한미은행 뒤)
TEL. (02)3446-0296 ~ 7, FAX. (02)3446-0298